

■ 최신 해외정보 - 브라질 · 중남미 ■

브라질 재활산업 시장 최근 10년간 5배 성장

요즘 브라질에서는 재활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는 경미한 장애 수준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수는 총인구의 23.9%에 해당되는 약 4,5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후천적 질병 · 총기사고 · 교통사고의 증가로 장애인을 위한 용품, 재활장비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기준 브라질의 장애인 용품 및 서비스, 재활장비 시장 규모는 약 35억 헤알(2조 1,30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브라질 재활용품 시장은 2011년에 정부가 2014년까지 약 76억 헤알의 재원을 재활장비 및 용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연구, 제품 판매 · 유통 등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는 적어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 정부, 향후 대도시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20조 투자 예정

최근 브라질 대통령은 '대도시 이동성 향상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따라, 18개 주 51개 대도시의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철도 · 지하철 · 경전철(VLTs) · 버스 전용 차로 설치 등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320억 헤알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중 220억 헤알(약 13조 3,196억 원)은 연방정부가, 나머지 100억 헤알(약 6조 544억 원)은 주와 시 정부가 투자하게 됩니다. 브라질 정부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상파울루를 비롯한 대도시의 여객 및 화물철도시스템 등이 다른 국제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뒤처져 있고, 상파울루 시내에도 지하철과 국철 6개 노선이 운행되지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브라질의 교통 인프라 시설 부족은 운송비를 증가시켜,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로 불리는 고물가 · 고비용 구조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